

오피니언

월/요/광/장

장택규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수출액은 전국의 10% 수준이고, 지역내 총생산은 7%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역경제의 비극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소기업대출 비중도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를 위해 지방중소

지역 대기업이 번 돈 유출 줄이려면

기업자금을 지역 내 총생산 비중 수준으로 확보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자금을 1.5%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여기에 자체 조달자금을 추가하여 우대자금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는 현재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난 1년간 3700

억 원이 증가하였다. 수해업체수도 2900 여개로 연간 800여개가 늘었다.

이와 같이 우리본부의 지방중소기업자금 지원실적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부품제조업, 금형산업, 광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역전략산업부분으로 선정하고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한 데 힘입은 바 크다. 현재 금융기관 신청기준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우대자금의 대출한도는 40억 원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확대가 우리지역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되어야 할 것이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겹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이 약화되고 그

영향이 신형시장국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내 경제도 소비부진 증가폭이 축소되고 수출도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등에 따라 상승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다행히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지고, 국제유가와 비철금속, 곡물 등 원자재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원인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전망에 맞추어 내년도 대응전략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제품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는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잘 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MB, 지역 대선공약 '空約'으로 끝낼 셈인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심경은 한마디로 허탈감 뿐이다. 지역 인맥이 철저히 소외되고, 지역 대선공약 이행 또한 공약(空約)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공약은 '필름' 예산으로 걸치려 시행에 불과한데 일부는 아예 사업 착수조차 못해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공수표'로 끝날 공산이 크다.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잘 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전망에 맞추어 내년도 대응전략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제품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는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잘 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중소기업은 이러한 대내외 경제전망에 맞추어 내년도 대응전략을 잘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전자제품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입장에서는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잘 적응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이같은 차별은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MB정부는 남은 1년 최우선 과제로 광주·전남에 제시한 대선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호남을 확대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다.

광주에 '아시아언론박물관' 설립해야

광주·전남 퇴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광주·전남 언론인회가 최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자리에 '아시아언론박물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언론인회 조동수 회장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이제 광주에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언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호남 언론사의 중심인 유서깊은 전일빌딩에 언론박물관을 만든다면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언론인회의 이같은 제안을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언론이 문화의 주요 부문이자 그 창달의 주역으로서 언론 박물관 설립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일빌딩 역시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입주했던 건물로, 1980년 언론 통폐합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정을 취재·보도했던 격동의 현장이자 광주현

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육성, 국립미디어센터 등 6개 사업은 올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 중인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남권 원자력의확인은 설계용역비를 예산에서야 반영했을 정도다. 지난해 7월 개관한 부산 동남권 원자력의 확원과 비교하면 지역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 준다.

공약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으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제시했던 것들이다. 그럼에도 예산 반영없이 임기말인 5년 차를 맞고 있다는 것은 호남 홀대이슈 표를 의식한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차별은 현 정권이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공생발전과도 정면 배치된다. MB정부는 남은 1년 최우선 과제로 광주·전남에 제시한 대선공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호남을 확대하고 성공한 정부는 없다.

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다. 비록 이곳이 조만간 철거되는 아쉬움이 크지만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차장과 문화 관련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 언론박물관 설립은 그를 대신할 제격이라 할 수 있다. 언론박물관이라는 콘텐트를 대표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유비쿼터스 박물관과 동아일보의 신문박물관이 있지만 사실상 두 언론사의 사설 언론박물관일 뿐 공공성이 없는 게 한계다. 정부와 광주시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언론박물관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시는 언론인회 및 지역 언론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론박물관에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 지역의 신문과 방송 등 다양한 콘텐트를 담아낸다면 우리나라 언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게 분명하다.

법조칼럼



우석환

소심한 성격 탓에 여자를 사귀는 주변버리도 없었고, 게으름을 피우다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필자는 또래에 비하여 결혼이 늦은 편이다. 결혼이 늦은 탓에 아이를 낳는 것도 늦어, 필자의 아이들은 이제 겨우 1살, 3살이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24시간 돌봐줘야 하고(참고로 3살인 딸 녀석은 어제도 새벽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쿵'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는 바람에 간담을 서늘게 했다), 이게 만만치 않게 힘든 것이라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일찍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된 친구 녀석들은 자녀가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녀석들은 애들 다 키우고 세상 시름없어 보여 부럽기 그

아이를 키우며 배운다

지않다. 검사라는 직업이 일에 쫓기 마련이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고, 이 덕분에 비로소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된 것도 같다.

대학고 때 상년식을 하였고, 법률에도 만 20세로 상년이 된다고 하였으니, 20살 먹으면 어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한 하면 어른이 되었거니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아이를 낳고 키워야 어른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다. 육아의 고통, 양육의 책임, 그리고 아이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나서야 '어른'이 되는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된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나서야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는 동안 느꼈을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내 아이들을 먹고도 입히는데 돈이 얼마를 것인지, 계산이 서고 나서야 가장으로서

부양의 책임을 느끼고, 술값을 조금씩 줄이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애정 덕분에, 내 아이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이타심이나 인류에 같은 추상적인 말들의 의미에 대하여도 '아주 조금' 이해가 깊어진 듯도 하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 느끼는 달라진 것들이 있다. 아이들이 피해자인 범죄들에 대하여 검사로서 느끼는 감정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검사 생활이라는 것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뭐 그리 여유롭고 '엘레강스'한 것은 아니어서, 매일 수많은 사건에 처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피해자들이 사람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보통사람 그대로 '피해자'로 다가오기 마련이며, 개개의 사건들이 갖는 애환들을 들여다 보고 공감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아빠가 되고 나서는 아이들이 피해자인 범죄에 대하여 만큼은 그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다. 막 걸음마를 댄 아

들이 차 뒤에서 아장거리는 줄도 모르고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아들을 사망하게 한 아버지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느꼈을 고통과 자책감이 어느 정도일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게 된 것도 최근이다.

아동보육시설에서 살고 있던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든 보육시설을 떠나 친동생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인 여자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가슴이 먹먹해 지게 된 것도 최근이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사실 규명을 위해 생업을 내팽개치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적어낸 진정서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된 것들 중 하나이다.

예전에는 무심코 스쳐갔던 것들이 아이들을 키우며 느끼는 경험들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 학교에 들어가고, 중·고등학생이 되어 '사고'라도 치게 되고, 학교나 경찰서에 보호자로 불려갈 때가 되면, '가해자'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 같다.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기고



임향숙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말이 있다.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많은 변화로 판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넘고, 힘든 생활을 해왔다. 무엇보다 굶주림의 고통은 가장 컸다.

그래서 그때에는 농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중요했다. 하나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았다. 지금처럼 농기계나 농자재가 풍부한 것도 아니었다. 믿는 것은 오직 하늘뿐이었다. 한 해 날씨가 좋아 풍년이라도 들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다운 삶을 살았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1980년대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업은 증산이라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농약을 쏟아 붓고, 화학비료를 남용하면서, 많이 생산만 하

농업이 살아가는 법

면 최고였다. 품종이나 종자도 다수확이 대세였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농업 개념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고 몸에 좋은 먹을거리를 찾게 되는 웰빙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많이 바뀌었다. 수입개방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허약해진 땅심을 되살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치가 바로 그것이다. 외국농산물에 맞설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도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농업이 살아가려면 농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소비자의 이해를 기대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단기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눈속임이나 대중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농업 개발을 위한 부단한 연구로 농업에서 내가 최고의 프로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집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 한-미 FTA로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다. 농업 부분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잠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처럼 농업이 수 천 년 우리나라 역사가 이끌어 왔다. 농업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없고, 국민이 없고, 안보도 없다는 말을 모두 동감할 것이다. 21세기 농업은 품질이자 브랜드이다. 모든 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인 것이다. 생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포장이나 유통 시스템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농업이 잘 살아가도록 독특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전략이다.

일본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다. 1991년 가을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불어쳐 수확을 앞둔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져 그해 농사를 망친 큰 사건이 있었다.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면 망연자실한 농부들에게 마을이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에게 10%의 남은 사과가 있다. 이 사과를 이용해 보자."

마을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시험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시험을 앞둔 학부모를 상대로 태풍으로 90%가 땅에 떨어졌지만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 보통 사과값의 10배를

만들어 주었다. 이게 중소기업에게는 단비같은 역할을 할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그렇지 않았다. 이 방안은 구슬력이 있는 강제조합이 아니라 협의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납품단가가 현실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거기다가 여차과 대기업이 노 하면 그만인것을 굳이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대기업에 직접 가격 인상률 요구를 하기도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체는 원자재 값 인상분을 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그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연동제' 도입

불어 판매했다. 일본 전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합격 사과' 덕분에 아오모리현은 태풍의 피해를 만회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 봤자 손해라고, 손 놓고 있기에는 아직 우리 농업은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흉수가 나서 농작물이 모두 망쳤다고, 폭설로 무너졌다고, 기온이 낮아지고, 높아져서 정상적으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다면 바로 우리 농업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인이 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신기술을 익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재해나 수입개방이라는 우리 농업의 생명을 앗아가는 괴물은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업인은 물론 비농업인들도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한시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노고에 대가를 시원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농업인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농업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영암 달마지회 회장>

이러도 빨리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원자재값의 변동에 맞춰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강제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예전에 도 논의됐다가 무산된 적 있다.

이 방안을 두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권을 해외로 돌려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만 더 커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서둘러서 납품단가와 원자재값 연동제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無等鼓

진(晉)나라 육경(六卿)의 한 사람인 범씨가 중행씨(中行氏)와 함께 다른 네 사람에게 의해 망하게 되었다. 범씨네 대문에는 맑은 소리가 나는 종이 달려 있었다. 환리를 틔다 어떤 사람이 이 종을 훔쳐가려고 했다.

그러나 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지고 갈 수가 없었다. 급기야 망치로 깨뜨려 가져가기 위해 종을 때리자 종소리가 사방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까 봐 겁이 나서 열린 자기 귀를 틀어막았다.

중국시대 말기 진(秦)나라의 승상 여불위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의 우화다.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자기만 듣지 않으면 남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나 자기가 할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비판을 듣기 싫어 귀를 막는 행동을 풍자한 것이다.

'제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다'는 뜻의 엄이도종(掩耳盜鐘)이나 '참새를 잡으면 서 들릴까봐 제 눈을 가린다'는 뜻의 엄복

포자(掩耳捕雀)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2011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엄이도종'을 선택했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 선관위 홈페이지 해킹, 대통령 측근비리 등 각종 사건과 정책 처리 과정에서 '소통 부족과 독단적인 강행'을 비판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많은 잘못을 해놓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은폐·호도하거나 소통을 하지 않기 위해 아예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는 '엄이도종'의 일화를 인용하면서 "종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귀를 막는 것은 지도자가 해

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눈 가리고 이용'하는 격으로 제 눈과 귀를 가리고서 남이 속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런데도 이런 행위를 버티고 하면서 비난을 피하려 잔꾀를 부리는 지도자가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0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